

2024년 1월 / 제38호

의정소식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차례

- 2024년 의장 신년사 / 04
- 2024년 의원 신년사 / 08
- 2023년 의정 결산 / 20
- 2023년 회기 운영현황 / 22
- 의원 발의 조례안 / 23
- 건의문 / 26
- 5분 자유발언 / 31
- 군정질문 / 34
- 단양군의회 방청 / 36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37
- 신문스크랩 / 48
- 2024년 회기운영 계획(안) / 59
- 제8대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 60







2024년 의장 신년사

단양군의회 의장 조성룡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고향 발전을 소망하는 출향 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4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힘찬 청룡의 기운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지난 2023년은 많은 제도적 변화를 우리 지역 의정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의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첫 청사 증축을 통해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여 의회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군민들이 쉽게 찾는 의회를 만들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의 기반을 충실히 닦아갔습니다.

이제 2024년은 제9대 단양군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기치로 한층 더 힘찬 도약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각과 바람들이 군정과 의정에 최대한 많이 녹여질수록 군민들의 행복 만족도는 높아갈 것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들의 생각과 뜻이 단양군의회에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린 의정 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때로는 작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어떤 큰 목소리보다 더 간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그 절박함에 먼저 손을 내밀고,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의를 듣는다’, 요일별 담당 의원을 지정하여 365일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순회 민원 상담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지속 운영해 가겠습니다.

둘째,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도 소홀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서 시작됩니다.

단양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원안가결된 2024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4,283억 원입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단양군의회에 예정된 총 9회, 90일간의 회기를 중심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군정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챙기고,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정책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협치의정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행복한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만들어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현장 테마형 연수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단양군의회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해 구성이 완료된 정책지원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의 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가끔 단양 대성산의 돌레길을 걷다 보면, 군민들이 쌓아놓은 돌탑들을 보곤 합니다. 몇 번을 다시봐도 무너지지 않고 서있는 돌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큰 돌들 사이에 쉬이 무너지지 않도록 괴어 놓은 돌인, 고임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모난 곳 없이 아귀가 딱딱 들어맞고, 서로간의 불협화음 없이 흘러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틈에 의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하좌우의 공백을 메우는 작은 고임돌이 작지만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힘들게 쌓아놓은 공든 탑이 더 높고,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돌들 사이의 모난 아귀를 단양군의회가 군민들을 위한 고임돌이 되어 단단하게 채워가겠습니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불러 주십시오.

8개 읍면의 크고 작은 군민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지극한 정성은 형태를 만들고 일이 이뤄진다는 지성능화(至誠能化)의 마음가짐으로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희망찬 푸른 용의 힘찬 기운으로 군민에게 희망의 힘을 북돋워 주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바람들이 모두 결실로 이어지는 ‘갑진’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부의장 신년사

단양군의회 부의장 김혜숙

감사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가올 새날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오늘, 여러분의 2024년이 그 어느 날보다 환한 웃음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새해 첫인사로 군민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감사함과 고마움'입니다.

의회에 입성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배울 것도, 공부할 것도 많은 저에게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은 제가 멈춤 없이 미약하나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모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과 위험이 가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이른바 3고(高)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악천후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군민 여러분 고단한 시간을 인내하며 지혜롭게 헤쳐 나가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지난해에도 약속 드렸듯이 늘 낮은 자세로 민심의 진의를 살피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받아들이는 소신과 원칙으로 성숙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2024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우며 모든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함께 고민하고 군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의원 신년사

단양군의의회 의원 장영갑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에는 힘찬 청룡의 기운이 8개 읍면 곳곳에서 총만하여 군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나아가 단양군이 대한민국의 중부내륙 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4선 의원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며, 단양군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신년 인사를 빌어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3만여 군민 들께 드리며,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단양군의 지방자치가 군민 중심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도록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단양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년간 3만여 군민의 의료 숙원사업이었던 단양 보건의료원이 7월 개원을 앞두고 있고, 시루섬 관광 레저타운 개발사업 등 지역의 100년 지 대계를 세울 굵직굵직한 관광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새해에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 속에서 8개 읍면이 건강하고 잘사는 지역으로 도약하여 소외되는 군민과 지역이 없이 우리 모두 잘 사는, 살맛 나는 단양군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묵묵히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의를 충실히 대변한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륜과 단양을 사랑하는 장영갑표 열정을 더해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군민들께서 희망찬 단양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영갑이 군민 여러분과 더욱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의원 신년사

단양군의회 의원 김영길

사랑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새해가 밝았습니다. 댁내 가정에서의 평화와 건강, 무한한 기회와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준엄한 명령에 힘입어 제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은 벌써 5할이나 흘렀고, 나머지 5할 중의 반인 1년이라는 새로운 의정 활동의 시간이 제 앞에 다가 왔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위정자(爲政者)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조례 제개정과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의한 집행기관 견제, 감시는 물론 군정 주요 정책의 추진·집행 방향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군민 여러분 개개인의 이익은 물론, 단양군 전체 이익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을 갖고, 군민 의원으로서, 또 주민의 뜻과 의지를 관철하려는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자로서 쉽지는 않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군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생각, 의견과 고견을 밑거름 삼아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제 몫의 완수에 하나 하나의 소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 군정 발전이라는 공동 가치 발양을 위해 분주한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발전의 대계를 위해 멀리 내다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밝게 살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어린 응원으로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기운이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을 환하게 비추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의원 신년사

단양군의회 의원 강미숙

‘군민 모든 분이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23년 한 해는 단양군 최초의 지역구 여성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잊지 않고 부응하기 위해 언행
하나하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려 최선
을 다했습니다.

조직화 되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 듣기를 주로 하면서 진솔한 소통과
현장을 소상히 느낄 수 있었고, 소리 없이 뒤에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 의정 활동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지난봄 우박 피해부터 여름의 폭우, 결실을 이룬
농가의 수확 직전 우박까지, 농가에는 유난히 가슴
아픈 피해가 우리 발걸음을 종종거리게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잘 극복하였기에 지
금은 안정된 모습을 빚게 되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에 늘 죄인입니다. 앞으로 짬짬이 주민분
들을 찾아뵙고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눌 기회
를 만들겠습니다.

‘무한불성(無限不成)’ 이 말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즉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없이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은 결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
생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이러 한
진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잊어버려도 우리는 또다시
끊임 없이 기억해야만 하는 진리가 바로 이 ‘무한불성



(無限不成)’의 정신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내가
하려면 무한한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
과 불행이 따라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글귀를 보셨을 겁니다.
흔히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
할 것이고 혹자는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군민 모든 분이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음을
키워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믿음과 신뢰,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도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안주(安住)라는 감미로운 유희과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소신 있는 의원이 되도
록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의원 신년사

단양군의의회 의원 오시백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군의의회 오시백의원입니다.**

단양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뛰었던 2023년이 저물고, 어느덧 2024년(甲辰年) 푸른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가정에서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일상에는 건강과 열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단양군의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도는 군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군민의 대의기관 명분에 걸맞는 권능과 위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우리군의 재산 상황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민간 위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단양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 오시백 의원은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마음속에 새겼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이념을 잊지 않고 2024년에도 군민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살고 싶은 단양’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갑진년에는 군민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의원 신년사

단양군의의회 의원 이상훈

존경하는 단양군 군민 여러분!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모든 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는 새로운 시작과 힘찬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도 이러한 갑진년(甲辰年)의 의미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해를 맞이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단양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인 2024년을 단양군의의회 의원으로서 군민과 함께 더 나은 단양군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약속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양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안과 협력을 통해 단양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양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해가 되기 위해 단양군의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단양군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양군 군민 모두에게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는 갑진년(甲辰年)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 단양군의회 의정 활동 결산

많은 제도적 변화를 우리 지역 의정 현실에 맞게 정착 시키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여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상”을 정립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단양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본격 운영된 첫 의회로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회 운영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양군의회는 변화하는 새바람에 발맞춰, 올해 정책지원관 모두를 배치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분야별 의정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의정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1991년 단양군의회 청사 개청 이후 32년만에 처음으로 의회동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회의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하는 한편, 청사 내 승강기와 슬로프 등을 설치하여 거동불편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의 청사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9회 93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등 총 169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 하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82건의 조례안을 정비하여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 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힘든 상황에서, 소중한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15회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 의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군민들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로 이동하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인 단양↔영동간 총북선 열차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단양↔영동 총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제315회 임시회)을 채택 후 충청북도에 송부하여 계속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양↔영동간 총북선 열차는 현재까지 지속 운행되고 있고, 향후 신규 열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단양에서 청주권을 연결하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 유지 및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제317회 임시회)’, 단양강 어족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제318회 정례회)’, 양봉 농가를 위한 ‘월동 꿀벌 피해 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제319회 임시회)’ 등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부처로 송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건의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중앙선 KTX-열차 단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운행 건의’가 금년도에 중부내륙법 제정과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서울 중심부와 단양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단양군 새마을회, 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관내 주요 단체와 단양경찰서, 단양소방서, 3105부대 1대대 등 유관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의를 듣는다’를 운영하여 군민,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생한 민생현장의 의견과 고충을 의정활동에 반영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신뢰받는 선진 의회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청양 로컬푸드마켓, 평창 산양삼단지, 전곡 선사 박물관, 의성 작은영화관, 충북 종단열차 등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과 관련된 선진지를 직접 찾아 운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찾는 ‘맞춤형 선진지 견학’을 통해 군정에 현장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예·결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심의 기법, 조례안 제정·심사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직원 합동 직무교육과, 올해 확충이 완료된 정책지원관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도 착실히 이수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의정 활동이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회기 중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의정 활동 결과는 밴드,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등 새롭게 구축된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드리고 군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 복도를 구름다리 미니갤러리로 새롭게 단장하여 단양 장애인복지관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 작가나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 청사 활용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2024년은 제9대 단양군의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군민 행복지수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뛰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발걸음으로 군민이 주인인 지방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성실함을 근간으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군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단양의 백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정주 여건의 질을 높여, ‘살고 있는 단양을, 살고 싶은 단양’으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2024년에도 단양군의회는 문을 365일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동네 사랑방처럼 자주 찾아 주시어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현황

| 회 기 | 활동기간 | 일수 | 주요 안 건 |
|-----------|-------------------|----|---|
| 제314회 임시회 | 1. 31. ~ 2. 3. | 4 | ·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
| 제315회 임시회 | 2. 20. ~ 2. 28. | 9 | ·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조례안심사(12건 ⇨ 원안6, 수정 6) ·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운행 촉구 건의문 |
| 제316회 임시회 | 3. 28. | 1 | ·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 ⇒ 1건 포함) |
| 제317회 임시회 | 4. 24. ~ 5. 3. | 10 | · 예산결산심사(2023년도 제1회 추경) · 단양 다사랑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8건 ⇒ 6건 포함) · 단양 다사랑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
| 제318회 정례회 | 6. 8. ~ 6. 22. | 15 | · 예산결산심사(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 조례안심사(25건 ⇨ 원안15, 수정7, 보류3) ·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
| 제319회 임시회 | 7. 4. ~ 7. 11. | 8 | ·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1건 ⇒ 1건 포함) ·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 주요업무계획 청취 |
| 제320회 임시회 | 9. 5. ~ 9. 29. | 15 | · 예산결산심사(2023년도 제2회 추경) · 조례안심사(12건 ⇨ 원안6, 수정6) ·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4건 ⇒ 4건 포함) · 단양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제321회 임시회 | 11. 7. ~ 11. 10. | 4 |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 제322회 정례회 | 11. 23. ~ 12. 19. | 27 | · 예산결산심사(2023년도 제3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19건 ⇒ 18건 포함) · 조례안심사(33건 ⇨ 원안28, 수정5) |

※ 정례회 2회 42일, 임시회 7회 51일

의원발의 조례안

| 연번 | 의결일자 | 조례명 | 발의자 | 주요내용 |
|----|------------------------------|--|-------------------|---|
| 1 | 2023.2.28. 제315회 (임시회) |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강미숙 의원 |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사회적 돌봄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낮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 2 | |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상훈 의원 외 6인 |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사항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도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협조 요청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관련 사항 일부 개정 |
| 3 | 2023.6.8. 제318회 (정례회) | 단양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오시백 의원 |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범죄 피해자의 인권 신장과 복리를 증진 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
| 4 | 2023.9.19. 제320회 (임시회) | 단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이상훈 의원 |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
| 5 | |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오시백 의원 | 단양군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 보 호와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 례를 제정 |

의원발의 조례안

| 연번 | 의결일자 | 조례명 | 발의자 | 주요내용 |
|----|-------------------------------|---|-------------------|--|
| 6 | 2023.12.29. 제322회 (정례회) |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강미숙 의원 | 우리군 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
| 7 | |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 | 김혜숙 의원 | 지역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조례를 제정 |
| 8 | | 단양군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성룡 오시백 의원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 마련 필요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또한 자연휴양림 이용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지역주민 우선 예약제 도입을 위한 일부 조례 개정 |
| 9 | |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10 | |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강미숙 의원 외 6인 | 공무국외출장 규칙 운용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 차단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규칙 개정안 발의 |

의원발의 조례안

| 연번 | 의결일자 | 조례명 | 발의자 | 주요내용 |
|----|-------------------------------|--|-------------------|---|
| 11 |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시백 의원 외 6인 |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조례 개정 |
| 12 | |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시백 의원 외 6인 |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방지과 내부 자정을 위한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기준 마련을 위한 일부 조례 개정 |
| 13 | 2023.12.29. 제322회 (정례회) |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영갑 의원 외 6인 | 기존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추천 시기와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조례 개정 |
| 14 |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혜숙 의원 외 6인 |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충청북도에서 권고한 진입제한을 완화해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 개정 |
| 15 | |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길 의원 외 6인 | 의회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조례 개정 |



건의문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이 지나는 충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으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께 단양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충북의 북쪽 끝에, 백두대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분기하는 곳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지금까지도 대중교통 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전철화와 중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개통으로 그나마 교통 환경이 개선된 상황이지만, 인터넷으로 세계와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2023년 현 시점에서 여전히, 도청소재지인 청주와 충북 남부지역을 잇는 단양의 대중교통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단양군에 충청북도의 관심과 배려로, 2014년 단비와도 같은 철도교통편이 생겨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충북의 북쪽 단양과 충북의 남쪽 영동을 1일 4회 직통으로 연결해 주고 있는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입니다.

하지만 뜻밖에 이 직통열차의 운행이 중단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4년 이후 올 해로 10년째 단양군민들에게 이 열차는, 충북의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편으로, 충북과 단양을 연결해 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루에 두 번 단양과 영동에서 출발해 충북 지역 곳곳을 이어주는 이 열차는, 특히 이동이 많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운행되며, 단양과 영동을 포함해 이 열차가 정차하는 충북 도내 곳곳의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열차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는 많은 고려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용과 편익은 중요한 고려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외된 곳과 작은 지역,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대중교통 여건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곳,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언제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협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해 지역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곳이기도, 충청북도의 특별한 배려로 그동안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가 운행돼 왔습니다. 이 열차 운행으로 단양군민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돼 지역간 이동권을 보장받아 왔고, 그로 인해 충북의 변방이라는 소외감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가 운행 중단된다는 소식은, 우리 군민을 또 한번 좌절하게 만들고, 충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식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이 주력산업인 우리군에 이 열차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 이 열차의 운행 중단은 철도교통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간 내륙지역인 우리 단양은, 소백산과 남한강(단양강)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지역 발전을 이뤘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코로나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방문객수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고통을, 우리 단양군민은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 이후, 지역경제가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는 시기에, 이 열차의 운행중단 소식은, 아쉬움을 넘어 충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단양군의 한계를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운행은, 비용과 편익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의 실현이라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커다란 편익을 담고 있는, 충청북도의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팬데믹 영향으로 시외버스 노선도 줄어든 더욱 열악해진 단양의 대중교통 환경에서, 1일 4회 제천, 청주, 대전, 영동을 환승의 불편없이 이어주는 이 열차는, 그만큼 단양군민에게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2023년 우리는,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협을 겪고 있는 저발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대한민국과 충청북도의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사업도,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소외돼 저발전 상황에 있는 충청북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도지사님께서 충북에 대한 사랑과 충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향해 보여주신 결기를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중앙정부를 향해 토로하며 요구하시는 배려와 지역 균형발전의 정신이, 우리 단양군을 향한 도지사님의 따뜻한 시선에도 늘 함께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회의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3만 단양군민의 뜻을 대신해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처럼 소외 지역을 배려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가,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앞으로도 중단없이 운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3. 2. 20.
단양군의회의 의원 일동



건의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은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지역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단양군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가맹점을 늘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과 밀착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내 중소형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영향은 인근 도시지역 대형마트와 같이 소비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경제활동을 이동하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생활권에서 소비활동을 해 왔던 특히,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더욱 커져, 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국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축소나 불확실성 확대는, 결국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오니,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해 개정하라.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

2023. 5. 3.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민물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문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텃새로 변신하며, 개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댐이나 수중보가 많아지며 먹이 활동이 안정되고,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등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24일자 조선일보에서는 ‘텃새된 가마우지, 생태계 잡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민물 가마우지는 1999년 2백여 마리였던 것이 지난해 11월에는 4만 7천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2백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가마우지 성채 한 마리는 하루 최대 1kg의 민물고기를 먹어 치우며, 전국 곳곳의 강과 호수에 어족자원을 파괴하고, 집단 서식에 따른 배설물로 인해 서식지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물 가마우지는 물속에 설치한 통발을 뜯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있다는 어민들의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호수가 된 단양강에도 텃새로 변한 민물 가마우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양강이 삶의 터전인 내수면 어업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어족자원 감소를 호소하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민물 가마우지의 출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배스와 블루길,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우리 하천에 유입됐습니다. 이들은 무차별적 먹이 활동과 번식력으로 우리의 하천 생태계를 점령했습니다.

초기에 이들의 확산을 잡지 못한 대가는, 지금도 퇴치를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민물 가마우지가 세력을 넓히고 있는 우리의 강과 호수의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천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텃새화되며 개체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우리의 산을 장악하고, 이제 농촌 마을까지 위협하고 있는 멧돼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채의 몸길이가 70cm 이상인 민물 가마우지는 대형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생태계에서 매와 수리, 올빼미, 너구리와 같은 천적이 있으나, 그 숫자가 적어,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민물 가마우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강과 호수의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고, 퇴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민물 가마우지의 개체수가 조절되도록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민물 가마우지가 단양강에 더 확산돼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과 토종 어류 포식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민물 가마우지를 하루속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오니,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8.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2년 연속된 꿀벌 실종사태로 양봉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꿀벌은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작물 가운데 70%가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벌꿀 1그램(g)을 만들기 위해, 꿀벌은 약 8천 송이에 꽃을 오가며 꿀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꽃과 꽃 사이에 꽃가루를 옮기는 덕에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지구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 5가지를 선정하면서, 그 가운데 꿀벌을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양봉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식물이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식물이 줄어들면 동물도, 인간도 위험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결국, 인류의 생존도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꿀벌을 대신해 사람이 인공수정을 할 경우 수반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과 양봉산업이 무너진 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후속 대책에 얼마 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꿀벌과 양봉산업을 지키는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이은 월동기 꿀벌 실종의 대규모 피해로 단양군은 물론,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내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꿀벌 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 해, 단양군 양봉농가의 월동 봉군 피해조사 결과는 심각합니다.

지역 양봉농가에서 9,323개 봉군이 월동에 들어 갔지만, 올 봄에 남은 것은 2,803개 봉군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겨울 사이 전체의 70% 정도인, 6,520개 봉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올 해 5월,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에 배정한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사업량은 460개 봉군입니다. 전체 피해 봉군 6,520개의 7%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보전 비율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연이은 꿀벌 실종사태로 깊어진 양봉 농가의 시름을 덜고, 도내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영한 충청북도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단양군과 도내 시·군의 양봉농가가 월동 피해 봉군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동꿀벌 피해 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동꿀벌 피해 입식비 피해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시·군과 피해농가의 부담비율을 낮춰 재정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적으로 꿀벌실종 사태의 근본 대책 마련과 양봉직불제 도입, 꿀벌 폐사 농업재해 인정, 꿀벌 가축 재해보험 보장성 확대, 밀원수 조성사업 확대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는, 충청북도의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5분 자유발언

»» 제315회 임시회
(2023. 2. 28.)



김혜숙 의원

전통이 있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 부활

“군민의 날 행사가 3만여 군민의 화합된 에너지와 지역 발전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양인으로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부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한, 단양군민과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내 고장 단양의 일반상식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요청한다.

올해는 단양이 ‘단양군’으로 개칭된 지 610주년이고, 2년 후 2025년은 신단양 이주 40주년을 맞게 된다, 단양군 역사의 의미를 담고, 새롭게 도약할 단양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년부터라도 (가칭) 제1회 단양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제안한다.”

»» 제315회 임시회
(2023. 2. 28.)



강미숙 의원

단양군 면단위 지역 보육시설 운영현실과 지원의 필요성

“단양의 12개 보육시설 중 9개가 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면 지역은 보육시설의 원아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역은 휴원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육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고 면 지역 보육시설의 감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지방 소멸 측면으로 보면 단양군으로 이주하려는 젊은이와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해 한 명의 영유아라도 소중하게 돌보는 체계가 우리 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

》》》 제317회 임시회
(2023. 5. 3.)



이 상 훈 의원

단양 관광산업,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의 육성 제안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광산업의 업종별, 지역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연구 기능 강화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농특산품의 부가 가치 창출 ▲단양의 특성을 살린 빛 축제, 야시장 개장 등 야간에 개최하는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수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단양군의 관광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검토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 제318회 정례회
(2023. 6. 8.)



장 영 갑 의원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 강화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한 몇몇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게 되면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단양군 스스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의회 승인이나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이 생략된 중요한 절차적 하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집행기관에 할애하고, 동시에 집행기관도 군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보의 상호 교환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는 말과 같이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제319회 임시회
(2023. 7. 11.)



오시백 의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전통적인 매장(埋葬) 문화에서 점차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장례 방법인 화장(火葬) 문화로 장묘 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도 산림 자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장(自然葬)이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어, 장례 환경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장과 봉안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우리 군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공설 자연장지가 79개소, 사설 자연장지가 112개소로 총 191개소가 있으며, 충청북도의 자연장지는 총 1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양군은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부재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제천 영원한 쉼터 자연장지는 현재 2023년 6월 기준으로 2,100기 정도의 안치 공간이 남아 있으나, 자연장을 원하는 단양군민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경기도 양평, 강원도 양구, 울산시 울주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군에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장의 장묘 문화를 확산시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활용하면 핼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이 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매장 문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새로운 장례 문화를 계승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양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 제321회 임시회
(2023. 11. 7.)



오시백 의원

적성대교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적성대교는 현재 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는 CCTV는 700대 이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확인이 어렵고, 교량의 낮은 난간은 쉽게 넘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포대교나 다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키 높이의 난간 펜스 설치와 난간 윗부분의 롤러 설치 등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어 골든타임 내 구조하는 방법으로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5대 사망원인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분석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6조 5천억 원에 이르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5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적성대교 교량의 시설물 설치는 사회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군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군정질문



김혜숙 부의장

김혜숙 부의장은 농촌활력과장에게 ‘귀농귀촌 인구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정착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은 군수에게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치,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은 부군수에게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장래 신축 되는 재산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부군수는 ‘신축된 건물들은 친환경 및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은 행정복지국장에게 ‘단양군의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행정복지국장은 ‘현재 단양군의 청소년 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 제공무원을 마감에서 라급으로 상향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은 군수에게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분담금 및 사업완료 후 군비소요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군수는 ‘공모단계에서는 면밀한 분석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공모사업은 군 현실에 필요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대비 공공편익이 큰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은 농림환경국장에게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소각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농림환경국장은 ‘현재 1단계 매립시설 운영 중이며, 남아있는 잔여 매립량을 고려하여 1년 6개월 소요 예정인 2단계 매립시설 건설 공사를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양군의회 방청

신청방법

- 단양군의회 직접 신청: Tel)043-420-3016 / Fax)043-420-3019
- 단양진로체험지원센터: '꿈단지체험' 프로그램 신청
Tel)043-422-1389 / Fax)043-421-2941
- ※ 모의 의정 체험 시 단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송출 및 녹화분 홈페이지 게재
<단양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ch/main.do>>



매포초등학교 학생 28명(2023.3.28.)



단양군 이장연합회(2023.3.28.)



단양군 장애인복지관(2023.11.12.)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3.28.)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3.11.23.)

회기운영

특별위원회 운영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4.27.)



제3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6.8.)



제320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2023.9.5.)



제320회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2023.9.7.)



제320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2023.9.12.)



제3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9.14.)

행정사무감사

제318회 정례회 (2023.6.9. ~ 6.16.)



개회식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의원

회기운영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제320회 임시회 (2022.9.7. ~ 9.11.)



의원간담회

지역 현안문제 및 군정 주요업무 논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개최: 15회



2023.4.11.



2023.8.29.



2023.11.13.

의정특수시책

‘민의를 듣는다’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민의를 듣는다(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개최(2023.2.20.)



민의를 듣는다(단양군 새마을지도자) 개최(2023.3.9.)



민의를 듣는다(단양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개최(2023.3.14.)



단양소방서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2023.9.21.)

의원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교육 참석(2023. 5. 15.)



청렴교육(2023. 11. 13.)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충남 청양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농부마켓' 견학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 견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양삼 특구 재배 현장 견학



경기 연천군 전국 선사박물관 견학



충북 종단열차(단양-영동) 열차 체험



충북 영동군의회 방문

기타행사



2023년도 시무식(2023.1.2.)



단양군 신년 인사회(2023.1.4.)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신청사 방문(2023.1.10.)



단양군의회 정례 의원간담회(2023.1.10.)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2023.1.12.)



지역향토부대(제3105부대 단양대대) 위문

기타행사



설맞이 소방대 위문 방문(2023.1.20.)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 참석(2023.1.31.)



삼구인화원 현장 방문(2023.2.15.)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2023.2.20.)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지원 모금 행사(2023.2.24.)



관내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주)관주식품 방문(2023.2.28.)

기타행사



국토대청결운동(2023.3.10.)



(사)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5차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 (2023.3.22.)



제1회 작은학교들의 큰운동회(2023.5.3.)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단양군 선수단 격려(2023.5.12.)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2023.5.31.)



제9대 단양군의회 개원 1주년(2023.7.4.)

기타행사



단양마늘 직거래장터 방문(2023.7.22.)



(구)금곡분교 민간개발사업 현장방문(2023.8.2.)



농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현장 설명회(2023.8.8.)



민주평통 단양군협의회 출범식 및 정기회의(2023.9.18.)



단양군장애인부모연대 기금마련 붕붕바자회 참석



‘용인특례시 - 단양군’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2023.9.23.)

기타행사



충주댐 치어방류 행사 참석(2023.9.26.)



도담정원 포도존 제막식 참석(2023.10.10.)



2023-2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모금 캠페인(2023.10.16.)



우박피해농가 일손돕기(2023.10.26.)



제9회 단양군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대회(2023.11.7.)



제2회 단양군의회의회장배 파크골프대회(2023.11.11.)

2023년 제9대 단양군의회 신문스크랩

忠淸日報

2023년 01월 03일 (화)
07면 지역

“열린·협치·정책의정 실현할 것”

조성룡 단양군의회장

충북 단양군의회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룡 의장(사진)은 2일 “군민의 바램을 담아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지방의정을 구현하고 협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조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 의정,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을 실현해 살고 싶은 단양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아가겠

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군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복지정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답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올해도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집행부와 소통 강화,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만들어 가는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단양=목성균기자

16.2 X 6.0 cm

충청신문

2023년 01월 04일 (수)
12면 지역

“군민의 민의 군정 충실히 반영할 것”

단양군의회, 시무식서 새해 의정활동 각오·결의 다져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지난 2일 충훈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새 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의회 청사 3층 본회의장에서 조성룡 의장과 김혜숙 부의장을 비롯



단양군의회가 지난 2일 충훈탐을 찾아 참배하고 청사 3층 본회의장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계묘년(癸卯年)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사진=단양군의회제공)

한 7명의 의원과 사무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9대 의회 출범 2년 차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3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계묘년(癸卯年)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이날 조성룡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3만여 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23년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의정’ 실천을 중심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을 강화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협치의정’ 및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 실현에 의정역량을 집중하여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이 지난 1월 2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충북시군의회회장협의회가 주관해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6.9 X 13.1 cm

충청매일

2023년 01월 04일 (수)
07면 지역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단양군의회는 장영갑(사진) 의원이 충북시군의회회장협의회가 선정한 ‘지방의정봉사

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임을 선상에 수상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와 주민이 주인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장 의원은 “지방의회가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견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노태현기자

4.7 X 13.0 cm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 깨끗한 수도물 공급 온 힘

군의회 전체 의원
수도사업소 등 점검

단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지난 10일 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와 단양정수장 신청사를 방문해 새롭게 도입된 정수처리

공정 시스템을 현장 점검하고 군민들의 식수 공급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단양정수장은 시설 노후화와 잦은 침수 피해로 이전 설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494억 원(국비

247억 원)을 투입해 표준정수처리공정이 도입된 정수장을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날 조성룡 의장은 "새롭게 조성된 정수장을 통해 더욱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에기치 못한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관리를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이형수기자 17.0 X 13.2 cm



단양군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3105부대 단양대대를 위한 방문예배 강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 3105부대 단양대대 방문

강병들 노고·격려 후 위문

단양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6일 지역 향토부대인 제3105부대 단양대대(대대장 박승민)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했다.

박승민 대대장의 초청에 따른 이날 방문에는 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현판과 전시 장비, 막사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며 통합방위태세 강

화 및 화합을 위한 안보 의식을 공유했다. 이후 병영 식당에서 대대장 이하 부대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룡 의장은 "각종 재난·재해 때마다 대인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온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어렵고 힘든 병영생활이지만 늘 건강을 챙기면서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정원환 기자 jh3411@dailycn.net 10.0 X 14.1 cm

단양군의회, 314회 임시회 개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 보고 받아
3일까지 군정 현안·주요 사업 꼼꼼히 살필 계획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31일 2023년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계묘년 새해 의사일정에 들어



단양군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314회 임시회 열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방과 지역 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해 전국 시멘트사 주변 6개 시군간 공동협력을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을 보고 받았다.

군 의회는 2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정책기획담당관부터 부서별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현안 및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조성룡 의장은 계묘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에도 단양군과 3만여 군민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민생현장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발전의 답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2023년 회기 일정으로 총 8회기 정례회 2일 42일, 임시회 6회 42일 총 94일동안 열릴 계획이다. 단양/정원환 기자 jh3411@dailycn.net 16.9 X 11.0 cm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어상현면 옛 단산중학교 부지에 들어서서 휴삼구아이앤씨 단양인수원 협장을 방문하고 있다.

단양군의회, 삼구인화원 방문
현지점검·회사 관계자 격려

충북 단양군의회는 지난 15일 어상현면 임현리(옛 단산중학교)에 조성 중인 삼구인화원 단양인수원 현장을 방문해 현지점검과 함께 회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의원들은 휴삼구아이앤씨에서 삼

구인화원 건립 사업의 규모와 현황, 추진 공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군 의회는 연수원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지역 인력 고용, 건설방비 사용, 지역농산물 소비, 가부관화 활성화 등 기업과 지역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단양-육성근기자 11.5 X 10.9 cm



단양군의회, 군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 신청사 방문
단양군의회가 지난 10일 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와 단양정수장 신청사를 방문해 새롭게 도입된 정수처리공정 시스템을 현장 점검했다. 단양정수장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와 잦은 침수피해로 이전 설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총사업비 494억 원(국비 247억 원)을 들여 표준정수처리공정이 도입된 정수장을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시운전에 들어갔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22.7 X 11.1 cm

단양군의회 올해 첫 회기 시작

단양군의회가 31일 314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첫 회기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계묘년 새해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의된 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주민의 환경·건강권 회복을 위해 전국 시멘트사 주변 6개 시·군간 공동협력을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을 보고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부터 오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정책기획담당관부터 부서별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현안과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5.4 X 7.8 cm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 지역간 균형발전·대중교통 여건 개선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20일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이날 군의회는 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충북의 북쪽 단양과 영동의 남쪽 영동을 1일 4회 직통 연결해 주고 있는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다"면서 "하지만 직통열차의 운행이 중단된다는 소식

을 접한 군민들을 또 한번 좌절하게 만들고 충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식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구나 관광이 주력산업인 단양군에 이 열차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단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어 이 열차의 운행 중단은 철도교통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회는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운영은 비용과 편익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의 실현이라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커다란 편익을 담고 있는 충청북도의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단양군의회 의원들은 3만 단양군민의 뜻을 대신해 소외지역을 배려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교통편의를 실현하고 있는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가 중단없이 운행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단양 정승주 기자 cm455@dailynews.co.kr



단양군의회가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단양~영동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가 지난 20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운영은 비용과 편익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의 실현이라는 충청북도의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소외된 곳과 작은 지역,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협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여건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리라며 그것이 중앙과 지방정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경제가 회복되리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는 시기에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의 운행 중단 소식은 단양군민을 또다시 좌절하게 만들고 충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의식을 배가시키는 등 커다란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길 의원은 "강력한 도지사가 충북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정신이 우리 단양군을 향한 도지사의 따뜻한 시선에도 늘 함께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김영한 충북도지사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단양/정연환 기자 jh3411@dailycc.net

단양군의회, 새마을회 등 2곳과 특수시책 '민의를 듣는다' 실시

단양군의회가 최근 두 번째 걸쳐 의정 특수시책인 '민의를 듣는다'를 운영해 민간사회단체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민의를 듣는다'는 군의회에서 지역내 민간사회단체를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의 하나로 추진되는 시책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난 9일과 14일에 각각 (사)단양군새마을회와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를 찾아가 '민의를 듣는다'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정의정' 실천을 통해 군민과 소통했다. cm455@dailynews.co.kr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사)단양군새마을회를 찾아가 '민의를 듣는다'를 운영하며 소통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총 16건 안건 처리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지난달 28일 단양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에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건의문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의 실현이라는 충북도의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상징인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의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충북도로 이송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심한 현지점검을 병행하는 등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전방이 있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 부활, 면 단위 지역보육시설 운영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김해숙, 감미숙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에 나섰다.

조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집중력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정연환 기자 jh3411@dailycc.net

"단양군민의 날 부활해야"

김해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 고취"

단양군의회 김해숙(사진) 의원이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단양군민의 날 행사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단양은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자긍심과 애항심을 고취하고 군민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군민의 날 행사가 3만여 군민의 화합된 에너지와 지역발전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단양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사태



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날 행사의 전통을 이미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우리 단양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갈 단양군민의 날 행사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양인의 자긍심과 애항심을 높이고, 출향 군민의 단양군에 대한 응원의 첫걸음은 바로 단양군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단양군민과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내 고장 단양의 일반식사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는 단양이 '단양군'으로 개칭된 지 610주년이고 2년 후 2025년은 신단양 이후 40주년을 맞는다"며 "단양군 역사의 의미를 담고 새롭게 도약할 단양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라도 (가칭) 1회 단양군민의 날 기념 행사 추진을 제안한다"며 거듭 당부했다. 단양/이형수기자 ih3411@dailycc.net

“지역화폐 지침 농촌 현실 반영 못해”

장영갑 단양군의원, 발행지원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등록 허용-중소형 마트 사용 못해”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장영갑(단양 가 선거구·민중당·사진)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 촉구 건의문에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면서 “이 개정 지침은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상황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지역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양군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가맹점을 늘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은 지역내 중소기업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고 반발했다.

이에 단양군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 개정하라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17.4 X 15.3 cm

단양군의회,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단양군의회가 지난 29일 의회 2층 의정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는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이 선임됐으며 신경주, 표동은, 임명혁 위원 등이 위촉됐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단양군의 2022회계연도 재산 상황과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성룡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기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단양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5.4 X 10.3 cm



단양군의회 전 의원이 충남 청양군의 보건의료원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 선진지에서 답을 찾다

보은·충남 청양군서 견학 실시 질의응답 시간 통해 자료 수집

단양군의회가 실무중심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맞춤형 테마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전 의원이 참석해

최근 하루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보건의료원, 충북 보은군 속리산 테마파크의 모노레일과 숲체험휴양마을을 견학했다.

군의회는 9대 의회 출범 후 그동안의 정활동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의정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지역농·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단양군 보

건의료원 건립과 효율적 운영 △관광지 주요 시설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선정했으며 지난 4월 의원간담회에서 단양군과 인구와 재정 규모 등이 비슷한 청양군과 보은군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단양군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꼼꼼히 의정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양/이형수기자

17.0 X 13.7 cm

“면단위 지역 보육시설 지원 이어져야”

강미숙 단양군의원 “읍 지역에 편중돼 있어 균형발전 저해”

강미숙(사진) 단양군의회 은 28일 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면 단위 지역 보육시설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 보면 단양군으로 이주하려는 젊은이와 아이를 출산해 키우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면 지역 보육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단양의 12개 보육 시설 중 9개가 읍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육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고 면 지역 보육시설의 감소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지방소멸 측면으

로 보면 단양군으로 이주하려는 젊은이와 아이를 출산해 키우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면 지역 보육시설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단양군 현실을 감안해 한 명의 영유아라도 소중하게 돌보는 체계가 단양군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단양군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11.3 X 9.6 cm

단양군의회, 10일간 임시회 개최

충북 단양군의회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의회는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단양군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장 등 8건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을 벌인다.

아달 27일부터는 집행부가 617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이게 된다.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길 의원(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 위원장에 강미숙 의원(민)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단양-묵성균기자



단양군의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방문

단양군의회(의장 조성용) 의원 일동은 지난날 31일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단양읍 고수리 431)’을 찾아 송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장병을 격려했다.

/단양군의회 제공

16.8 X 9.3 cm

단양군의회 행감 마무리

동화마을 분양 지연 지적

단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9-16일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운영해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특별위는 강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 관광 자원화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단양구경시장 전국 K-관광마켓 10선 선정,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 ▷타 자치단체와 공동협력 주도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반면 ▷위원회 운영 관리 소홀 ▷공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액(처분가격) 신뢰성 제고 ▷황포돛배 운영 개선안 마련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부재 ▷별 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분양 지연 등을 비롯한 총 21건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안 마련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길 / 단양

6.8 X 24.8 cm

“단양군의회-집행기관 소통·협의 강화해야”

장영갑 군의원 5분 자유발언

단양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영갑 단양군의회는 8일 열린 제318회 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열어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했던 몇몇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양 기관의 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사례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군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균형



8일 열린 제318회 단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영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복 기자

내 주차타워 건립 사업’과 올해 1차 추경 때에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산불없는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공모 사업 등은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소통과 협의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군의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군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중요도 네 귀를 들어야 바르다”라는 속담처럼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은 더욱 발전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5@octoday.co.kr

17.2 X 10.5 cm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의회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달 31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숭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성룡 의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6·25 전쟁 당시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의회도 이에 발 벗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형수기자

11.2 X 9.3 cm

9대 단양군의회 개원 1주년 충주댐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충북 단양군의회가 27일 매포음에 소재하고 있는 충주댐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배식 봉사에는 조성룡 의장을 비롯해 의원 7명 전원과 사무과 직원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성스럽게 점심을 배식했다.

이번 배식 봉사는 군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민생현장에서 더 가까이 주민과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했다.

조 의장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단양-강두원 기자 kdw@gglibo.com

6.7 X 16.0 cm

견제와 감시로 협치 돋보인 지난 1년

3대 단양군의회 1주년

조성룡 단양군의회장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조 의장으로부터 지난 1년 소회와 남은 1년간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왔다.

◇단양군의회 취임한 지 1년이 다가오는 데 감회와 주요성과는.

"9대 의회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개원한 첫 번째 의회다. 지난 1년 동안 경제회 3회, 임시회 8회 등 총 11회기를 운영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은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 의원이 힘과 지혜를 모았다. 사무과 조직은 기존 의정·의사무 2팀 체제에서 '정책지원팀'을 신설한 3팀 체제로 확대했다."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지방 의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9대 단양군의회는 역대 가장 많은 재선의원과 여성 의원들로 구성돼 경제회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년간 경제회 3회, 임시회 8회 등 총 11회기를 운영하며 의원발의 13건이 포함된 조례안 82건, 예산·결산안 10건, 동의안 10건, 건의문 6건, 기타 22건 등 총 1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심사 과정과 결과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4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조치 결과를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 전체 37개소의 주요 사업감점 및 49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세심히 점검하고 올바른 군정 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각종 군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원간 담화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열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부와 단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협치 의정' 구현에도 노력했다."

◇주요 현안 추진 상황과 인식권 독립

후 달리진 의회 모습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의 인사가권이 독립됐고 의정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임되는 등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대폭 강화됐다. 9대 단양군의회는 그동안 개선된 지방자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올해 7월부터는 기존 1명으로 운영한 정책지원 업무를 '정책지원팀'을 신설해 의정활동 지원에 강화한다. 정책지원팀에는 팀장 1명과 정책지원관 3명이 배치되고 정책지원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과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선 KTX이을 서늘역까지 연장 운행과 단양역 무정차 통과 및 열차 정차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 △단양-영동 충북선 직통열차 지속 운행 △지역사업상문권 발행지역 지정 개칭 △민물고기마루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에 대해 군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공론화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군민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시멘트산업 배출 CO2 활용 △단

양군민의 날 행사 및 전통 △아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 △단양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군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의의 강화 등을 주제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활성화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남은 1년 의회 운영 방향은.

"최고우연하지 않겠다. 저를 비롯한 단양군의회 의원 7명 모두가 오직 단양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한 곳만을 바라보겠다. 3년이 군민 앞에서 손을 들고 다짐했던 의원선서를 되새기며 9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열린 의정을 강화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작은 소망들부터 하나하나 실현되는 삶맛 나는 단양을 느끼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더욱더 총출력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군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7명 의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단양군 정책의 민의가 충실히 반영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정을 실현하겠다. 그동안 평행했던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불신을 신뢰의 시선으로 되돌리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단양군의회가 앞장서 전개하겠다."

단양/이형수기자



단양군의회, 경찰서와 간담회 지역 치안 질서 확립방안 논의

단양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지난 30일 박희규 단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단양경찰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강력 범죄 예방과 지역 치안 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제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355개소에 79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며 공원, 어린이 시설, 범죄 취약지역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공간을 중심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조성룡 의장은 "안전한 단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형수기자

17.0 X 4.3 cm

“월동 꿀벌 피해 농가 입식비 지원 7% 수준”

단양군의회, 피해 농가 도비 증액 지원촉구 건의문 채택
이상훈 의원, 시·군비 부담 비율 낮출 것 등 조치 요구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동 꿀벌 피해 농가 도비 증액 지원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4일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에서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동 꿀벌 피해 농가 도비 증액 지원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연이은 월동기 꿀벌 실종의 대규모 피해로 단양군은 물론,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내 양봉농가의 사름이 깊은 상황이지만 꿀

벌 실종 피해 규모에 비해 월동 꿀벌 피해 농가 입식비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올해 5월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에 배정한 월동 꿀벌 피해 농가 입식비 지원은 전체 피해 봉군 6520개의 7% 수준인 460개에 그치고 있고, 피해 보전 비율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로 되어 있어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꿀벌 실종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원인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훈 의원은 “꿀벌의 실종은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성을 경고하면서 월동 꿀벌 피해 농가에 대한 도비 증액 지원과 시·군비 부담 비율을 낮춰 줄 것 등 꿀벌 실종사태에 대한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는 이달 1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한다.

또한, 제9대 의회 개원 후 1년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집약된 56건의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n.net
16.9 X 16.6 cm

단양군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운영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5일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이다.

군의회는 5~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숙)를 열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7~11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사백) 운영을 통해 32개의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12~13일 이틀간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길)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갑)에서는 14~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약 411억 원 정도가 증액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1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단양=강두원 기자



단양군의회·경찰서,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

관은 간담회에 이어 단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관제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단양군의회는 단양경찰과 강력범죄 예방 및 지역 치안질서 확립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17.0 X 10.0 cm

새얼굴

장영갑 단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 최선”

충북 단양군의회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장영갑 의원(사진)이 선임됐다.

장영갑 위원장은 오는 14~18일 닷새간 군이 의회에 제출한 적성면 기동리 군도 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 12억원,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매입비 39억원 등 모두 41억원 규모를 심의한다.

장영갑 예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을 감안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단양=목성균기자

11.4 X 8.0 cm

충청매일

2023년 10월 18일 (수) 09면 지역

조성룡 단양군의회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화합하는 의회상 구현 힘써

충북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이 17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 주어지는 상이다.

조 의장은 의정 특수시책인 ‘민의를 듣는다’를 실시해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매월 정기 및 수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등 화합하는 의회상 구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태현 기자



조성룡(오른쪽) 단양군의회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18.0 X 9.0 cm

충청투데이

2023년 11월 02일 (목) 14면 지역

단양군의회 우박 피해 농가 일손돕기

단양군의회는 31일 최근 내린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단성면 외중방리 사과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펼쳤다(사진).

이날 조성룡 군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과 11명의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예기치 못한 우박 피해로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로하고 사과 수확, 피해목 정리 등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다.

또 농협단양군지부와 단양 지역 내 농·축협 직원들로 이뤄진 단양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 임직원 20여명도 우박 피해를 입은 단양군 대강면 사과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과 선별 작업을 펼쳐 신속한 복구에 힘을 보탤다.

조성룡 의장은 “갑작스럽게 내린 이번 우박 피해로 수확철에 큰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확 농산물 판로 방안 모색 등 피해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octoday.co.kr



6.7 X 17.2 cm

충북일보

2023년 10월 30일 (월) 11면 지역

단양군의회, 건의사항 청취

단양군의회가 지난 26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 27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부터 내린 1cm내외의 우박으로 인해 배추와 사과 등 가을 출하를 준비 중이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조성룡 의장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형수기자

5.4 X 7.4 cm

동양일보

2023년 10월 26일 (목) 09면 동해

단양군의회, 손영조 소장에 감사패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장 수년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 의원들은 25일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를 방문해 손영조 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단양군 기곡면에 소재한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서 군의회는 단양 지역의 국립공원 환경보전은 물론 소백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상

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산행 서비스를 수년째 제공하는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전달했다.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2018년부터 소백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친환경 도시락 ‘내 도시락을 부탁해’ 서비스와 하산 장소로 등산객 차량을 탁송해주는 ‘내 차를 부탁해’ 서비스를 운영해 등산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조 의장은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소백산을 특별히 단양에서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산행할 수 있도록 예스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5일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를 방문해 손영조 소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광 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가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강승주 기자 apm6455@dynews.co.kr

23.6 X 8.2 cm

단양군의회, 우박 피해 농가 일손돕기

외중방리 사과 농가 방문
사과 수확 등 복구 힘 보태

단양군의회는 31일에 지난 26일 내린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단성면 외중방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단양군의회 의원 7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11명 등 약 20여명이 함께 우박 피

해로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로하고 사과 수확, 피해목 정리 등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다.

조성룡 의장은 "갑작스레 내린 이번 우박 피해로 수확철에 큰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확 농산물 판로 방안 모색 등 피해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h3411@dailycc.net



단양군의회 조성룡의장과 의원들이 우박 피해를 입은 단성면 외중방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11.2 X 16.7 cm

단양 적성대교 자살방지 대책 마련 촉구

오시백 의원, 임시회서 5분 발언

단양군의회 오시백(사진) 의원이 7일 열린 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자살명소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적성대교에 대한 자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는 CCTV는 700여대로 상황 확인이 어렵고 교량의 낮은 간간은 쉽게 넘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살 수단 접근을 제한한 키 높이의 난간 펜스 설치와 난간 윗부분의 물리 설치



등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어 골든타일 내 구조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법은 서울의 마포대교나 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도 했다.

오 의원은 "적성대교 교량의 시설물 설치에 사회 정책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군에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정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11.5 X 10.6 cm

충북일보

단양군의회 게이트볼 대회 성료

'27회 단양군의회 의정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6일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단양군게이트볼연합회(이광용 회

장)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내 16개 팀 200여 명이 참가했다.

리그전을 통한 치열한 경쟁 끝에 우승기는 적성팀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매투팀, 공동 3위는 이상천과 영춘팀이 각각 수상했다.

조성룡 의장은 "단양군의회의정기

게이트볼대회가 벌써 27회를 맞게 돼 매우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많은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단양을 더욱 활기차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이행수기자

11.0 X 13.0 cm

단양군의회, 321회 임시회 4일간 개최

3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단양군의회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국별로 행정복지국, 관광건설국, 농림환경국 순으로 10일까지 20개 부서의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신규사업계획을 듣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는 단양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를 이용한 거동불편 장애인 3명 등 약 18명의 방청인이 함께하여 새롭게 구성된 의회 청사 내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이다.

조성룡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과의 약속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계획들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 집행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는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단양/정연환 기자 jh3411@dailycc.net

11.1 X 10.4 cm

단양군의회 선진지 견학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20일 충북선 열차 체험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맞춤형 테마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단양군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충북중단열차(단양-영동)를 체험하며 열차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높인 관광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단양 울누림 행복가족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작은 영화관과 관련해 현재 영화관을 운영 중인 영동군 레인보우영화관과 의성군 작은영화관을 방문해 군에 적합한 운영 방법을 알아봤다.

조성룡 의장은 "단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진지를 직접 찾아 운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찾는 맞춤형 현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4.8 X 12.0 cm

단양군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김혜숙 위원장 "적재적소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4일~18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내년도 단양군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4283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9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곡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힘든 상황에서 편성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전전재정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균형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 균형

감을 가지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해 제출됐다.

김혜숙 위원장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들이 조금도 낭비됨 없이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 특위에 상정된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9일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확정된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ycc.net

11.1 X 10.9 cm



단양군의회는 지난 13일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단양군의회 제공)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될 것"

단양군의회, 청렴교육
강상우 전문강사 초빙

단양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들의 청렴 및 부패근절 의식의 함양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공공기관 소속 모

든 공직자들의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이날 강의는 강상우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률규정 및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조성룡 의장은 "단양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ycc.net

11.2 X 14.6 cm

동양일보

단양군의회, 322회 정례회 개최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23일 322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9일 까지 2023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안·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건의 조례·규칙안 등이다.

23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담은 김문근 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동의안·출연계 획안 등을 처리한다.

조 의장은 "내년도 군 살림살이를 성실히 편성해 주민 집행부 650여 공직자께 감사를 드린다"며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낭비없이 3만여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면면을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ycc.net



단양장애인복지관, 군의회 임시회의 방청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여 새롭게 조성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본회의장까지 이동해 엄숙한 분위기에 진지하게 임시회의를 방청했다. 단양군의회 임시회의를 직접 보며 단양군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단양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일감지원센터 참여자와 담당자들이 함께 단양군의회에서 진행되는 임시회의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여 새롭게 조성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본회의장까지 이동해 엄숙한 분위기에 진지하게 임시회의를 방청했다. 단양군의회 임시회의를 직접 보며 단양군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지역 주민들이 단양군의회와 군청사 연결동로인 구름다리에 전시 중인 단양장애인복지관 수강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의회

단양군의회 구름다리 '미니갤러리' 변신

장애인복지관 수강생 작품 전시
서예·한국화·캘리그래피 40점

단양군의회가 군청사와의 연결동로인 구름다리에 단양장애인복지관 수강생들의 작품을 올해 연말까지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들은 서예, 한국화, 캘리그래피 등 총 40여 점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제작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자기 계발과 그 결과물의 전시를 통해 지역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 전시가 호평받고 있다. 최근 군의회는 엘리베이터, 슬로프 등을 설치해 거동 불편 장애인들의 의의 방문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회와 군청을 잇는 연결동로에 청사 방문객을 위한 구름다리 미니갤러리를 조성했다. 조성용 의장은 "지역 작가나 주민들

이 만든 멋진 작품들을 공유할 작은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의회 청사 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이 더 쉽게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의회로 만들었다"며 "단양군의회 문은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365일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사랑방 같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름다리 미니갤러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 문의는 단양군의회 의정팀(043-420-3011)으로 연락하면 된다. 17.9 X 22.2 cm



단양군농업인단체협, 불우이웃돕기 쌀 380kg 전달

조우형(오른쪽)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농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김운근(가운데) 단양군수와 조성용 단양군의회 의장에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쌀 380kg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5 X 7.4 cm

충청신문

단양군의회, 김장나눔행사 동참... "군민 세심히 살필 것"

단양군의회장 조성용(가) 13일 충주연도인 복지관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장·나눔행사 동참했다. K-water 충주권지사과 함께하는 단양군 김장·나눔행사는 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단양군지... 2023년 11월 14일 17면 8면

충청신문

"소통의 의정활동 펼칠 터"

조성용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군의회 조성용 의장이 "새해에는 힘찬 청룡의 기운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제9대 단양군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기치로 한층 더 힘찬 도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들의 생각과 뜻이 단양군의회에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며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그 절박함에 먼저 손을 내밀고,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항상 배움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 향상에 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의회를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10.2 X 11.4 cm

충청투데이

단양군·단양군의회, 군 발전 위한 신뢰의 마음 통했다

충청투데이 2023년 12월 22일 14쪽 4쪽

충청투데이 2023년 12월 22일 14쪽 4쪽

충청투데이 2023년 12월 22일 14쪽 4쪽

동양일보

김영길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의정활동 통한 군민 복지증진 향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김영길 자문위원이 2023년 '유공자문위원 의장(대통령)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통 의장(대통령)표창 받았다. 김영길 의원은 18-19기 국민소통분과위원장에 이어 20-21기 민주평통 지역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통일인의 견수령, 평화통일 공감 좌담회, 탈북민과의 간담회, 평정문화 체험, 통일 안보 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복지증진 향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길 의원은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징송주 기자 ppm6455@dynews.co.kr 11.5 X 9.7 cm

2024년 회기운영 계획(안)

| 회 수 | 회 기 | 일수 | 주 요 안 건 (예 정) |
|-----------------------|-------------------|----|---|
| 제323회 (임시회) | 1. 23. ~ 1. 26.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기타 부의안건 |
| 제324회 (임시회) | 3. 5. ~ 3. 13. |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
| 제325회 (임시회) | 4. 30. ~ 5. 9.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기타 부의안건 |
| 제326회 제1차 (정례회) | 6. 10. ~ 6. 24.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3년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
| 제327회 (임시회) | 6. 28.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장단 선거) |
| 제328회 (임시회) | 7. 15. ~ 7. 19.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질문 ○ 주요업무계획 청취(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 제329회 (임시회) | 8. 27. ~ 9. 9. |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
| 제330회 (임시회) | 11. 5. ~ 11. 8.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청취 (2024년도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신규사업계획) ○ 기타 부의안건 |
| 제331회 제2차 (정례회) | 11. 22. ~ 12. 19. |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

총 9회기 90일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7회 47일)
상반기: 39일 / 하반기: 51일

*의정 여건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단양군의회 의원 현황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장 **조성룡** <가 선거구>

재선
제 8대 단양군의회 의원
전)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부면장
전) 단양중·공고(현, 한국호텔관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현) 황정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현) 단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부의장 **김혜숙** <비례대표>

초선
전) (사)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사)대한미용사회 단양군지부장
현)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
현) 북부권발전협의회 위원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장영갑** <가 선거구>

4선
제 5대, 제 6대 단양군의회 의원
제 8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전) 단양중학교 운영위원장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김영길** <가 선거구>

초선
전) 단양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전)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전) 단양군청소년수련관 지원협의회 회장
현) 단성중학교 총동문회장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강미숙** <나 선거구>

재선
제 8대 단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부관장
전)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전) 영월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강사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오시백** <나 선거구>

재선
제 8대 단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전) 전국한국화학노동조합 시멘트분과 위원장
전) 성신양회(주) 노동조합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충북당 시멘트산업 특별위원장
현) 매포초등학교 총동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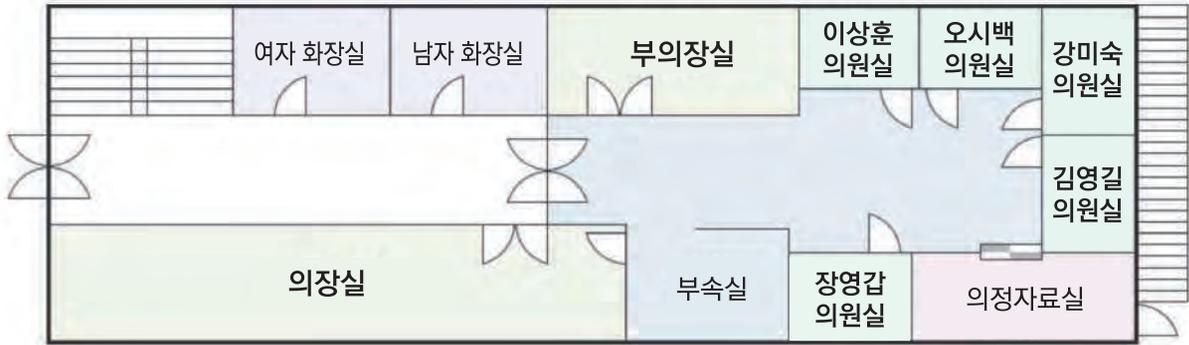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이상훈** <나 선거구>

재선
제 8대 단양군의회 의원
전) 단양군청년연합회 회장
전) 단양청년회의소 회장
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제천단양지역협의회 위원



의회 전화번호



| | |
|-----------------------------|----------------------------|
| 조성룡 의장실 T. 420-3000 | 김혜숙 부의장실 T. 420-3001 |
| 김영길 의원실 T. 420-3006 | 장영갑 의원실 T. 420-3003 |
| 강미숙 의원실 T. 420-3005 | 오시백 의원실 T. 420-3004 |
| 이상훈 의원실 T. 420-3002 | 부속실 T. 420-3007 |
| 의회사무과장 T. 420-3010 | 전문의원 T. 420-3020~3021 |
| 의정팀 T. 420-3011~3017 | 의사팀 T. 420-3031~3034 |
| 정책지원팀 T. 420-3041~3044 | FAX T. 420-3019 |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TEL. 043)420-3011 FAX. 043)420-3019